

大邱地域 近代建築의 建立主體別 類型分析에 관한 연구

尹在雄

(효성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조교수)

I. 서론

본 연구에서는 대구지역 근대건축의 外觀構成을 중심으로 유형을 분류하여 그 특성과 의미를 찾아 보고자 한다. 연구 대상은 1886~1945년에 걸쳐 大邱地域에 건축된 西歐樣式의 建築物이다.

연구의 진행은 먼저 大邱 근대사와 관련된 각종 문헌자료 및 舊 登記簿謄本 閱覽, 探問, 現場 調査 등을 통하여 建築物의 소재를 파악한 후 實測 調査 하고, 이들 자료를 건립주체별, 건축년대별, 유형별로 정리하여 분석·고찰하는 방법으로 하였다.

건물의 實測 調査는 1987년 2월부터 1988년 12월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조사내용은 ① 건축배경 및 연혁 ② 실측도 작성 ③ 사진촬영 ④ 건물의 변형과정 및 보존상태 등이다.

대구 근대건축 시기구분은 한국 근대건축의 시기구분과 大邱 近代史 및 건축적 배경을 참고하여 ① 胎動期(1886~1910), ② 形成期(1911~1926), ③ 發展期(1927~1945) 3기로 구분하였다.

II. 建立主體別 建築的 理念

한국 근대건축사에서 주목되는 특징 중의 하나는 각 建立主體들의 건축이념이 건축양식 결정에 주요 因子로 작용해 온 점이다.

開港期 以後 大邱에는 歐美人 종교단체(天主教, 改新教)의 프랑스인 신부, 미국인 宣教師들과 일본인, 중국인 등이 들어와서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이들중 歐美의 종교인들은 선교뿐만 아니라 醫

시기	건립주체		일본인	중국인	한국인	계
	歐美 天主教	宗教團體 改新教				
I기 (1886 ~ 1910)	3	9	6	-	-	18
II기 (1911 ~ 1926)	6	5	25	1	2	39
III기 (1927 ~ 1945)	4	5	20	1	4	34
계	13	19	51	2	6	91

표 1-1 시기별, 건립주체별, 조사대상 건물 수

療事業, 教育事業, 慈善事業 등의 間接宣敎活動을 통해 교회와 大邱地域 文化發展에 이바지하였고, 일본인들은 大邱를 植民地 經濟收奪을 위한 商業都市로 變貌시켜 나갔다.

또한 중국인들은 大邱의 宗教團體 建物を 맡아 施工해 오면서 大邱 府民들에게 벽돌 製造法과 組積法을 소개하였다.

大邱地域 近代建築에 있어서

① 宗教團體의 건물은 대부분 天主教의 當家神父¹⁾들과 改新敎의 美國인 宣敎師²⁾들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② 일본인들의 건축은 대규모 건물인 경우는 주로 總督府 傘下 營繕課 소속의 일본 技術者들이나 서울에 있는 民間 建築家들에 의해, 소규모의 건물은 大邱府 또는 慶尙北道 營繕係 소속의 일본인 기술자들에 의해 설계, 감독되었다. 따라서 이들 건축물에는 각 建立主體들의 建築理念과 시대정신, 문화적 배경 등이 樣式類型 결정에 있어서 주요한 因子로 작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1. 歐美 宗教團體의 天主教

대구의 天主教建築의 建立主體는 대부분 중국을 거쳐온 파리 外邦傳敎會 소속의 프랑스인 신부들이었다. 이들 신부들은 聖俗二分法에 토대한 敬虔主義 信仰, 그리고 文化 優越主義의인 思考方式의 소유자들로서 이들의 宣敎理念은 敎理와 典禮中心으로 개인보다 地域的 敎會體制의 構築에 보다 관심이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사회참여보다는 사회로부터의 超越性에 관심을 갖고 있었고, 韓國社會의 문화적 전통이나 歷史的 現實에 대해서는 偏見을 갖고 있었다. 그리하여 敎會는 人間의 靈魂救濟나 來世에만 關心을 가질 뿐 現世에

1) 大邱의 當家神父들로는 프랑스인 ACHILLE PAUL ROBERT(1886~1919), VICTOR LEUIS POISNEL(1910년대), JOSEPH VERMOREL(1919~1931) 등이 있다.

2) 대구지역의 건축활동에 참여한 선교사들로는 JAMES E ADAMS(1890~1920년대 중반)와 H. H. HENDERSON 등이 있다.

대해서는 無關心해야 한다는 政敎分離政策을 철저히 고수하였다.

2. 歐美 宗教團體의 改新敎

대구 改新敎 건축의 建立主體는 대부분 美國北長老敎會 소속의 선교사들이었다. 이들 改新敎 團體의 宣敎理念은 PROTESTANT主義에 입각하여 聖書와 個人的 敬虔한 신앙생활에 비중을 두고 있었으며, 또한 宣敎師들은 그들의 宣敎政策에 따라 自治, 自立敎會를 표방하면서 敎育, 의료사업과 함께 宣敎活動을 전개해 나갔다. 따라서 敎會의 形式은 말씀에 비중을 둔 실용적 集會所로서의 空間만이 목적이었고, 敎會用 建物は 現地의 建築樣式을 수용한 形態로 지어야 할 것이 요구되었다.

3. 일본인

일본을 통한 大邱의 근대건축은 1905년 乙巳保護條約 이후부터 들어서기 시작했으며 이때부터 지어진 건물들은 대부분 日帝가 植民統治 수단으로 건축한 것이다. 日帝植民統治의 기본정신은 그들의 優越性을 강조하면서 統治力을 과시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건축물은 度支部 建築所에서 總督府 建築所로 이어지는 일련의 官家建築이 주류를 이루었다.

4. 중국인

대구에 중국인들이 들어와 활동하기 시작한 것은 1901년 부터였다. 1912년에는 대구 초대 교구장 Demange주교의 요청으로 중국 山東省 出身의 기술자들이 들어와 주로 歐美 宗教系統의 건물을 맡아 시공하면서 벽돌제조법과 조적기술을 소개하였다. 중국인들의 이주는 1930년에 들어 증가를 보이기 시작하였는데 이들 중 상인들은 西門路邊, 건축 기술자들과 농민들은 주로 남산동과 봉산동에 거주하였다.³⁾

3) 洪 慶姬: 大邱市—도시 지리학적 연구—大邱市, 1966, p. 146.

5. 한국인

3.1運動後 日帝는 植民統治 方法을 無斷政治에서 이른바 文化政治로 전환하였다. 따라서 대구의 민족주의자들은 1920년대에 들어와서부터 격렬했던 3.1운동의 감정에서 방향을 돌려 먼 안목으로 실력을 배양하는 사회, 문화운동과 더불어 교육에 깊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당시 대구의 선각자들은 일본인들의 건축에 대하여 教育, 文化, 商業建築 등을 건축해 나갔다.

Ⅲ. 外觀類型 分析

1. 외관양식 유형의 분류

대구지역 근대건축의 입지, 구조, 평면형태, 외관구성(출입구, 창아치, 지붕등)을 類型別로 분류하여 살펴 보고, 이들 여러 가지 類型을 西洋建築史의 發達過程에서 생겨난 建築樣式의 일반적 특성(특히 外觀構成要素)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類型分類의 틀을 마련하였다.

- 傳統指向形
- 韓·洋折衷形
- GOTHIC REVIVAL STYLE
- COLONIAL 風
- GEORGIAN 風
- 르네상스 風의 建物
- 西歐의 近代의 建物
- 日·洋折衷形
- 日·洋複合形

2. 建立主體別 外觀 類型

(1) 歐美 宗教團體의 天主教

分析對象의 天主教 團體建物은 13개며, 用途別로는 성당 4개, 학교 2개, 주거 2개, 공소, 병원, 수녀원 각 1개와 聖母窟, 講堂 등 다양하다.

1) 調查對象 建築物의 要素別 類型

① 立地

宣敎 초기 大邱府內의 信徒 私家에서 西門 밖의 平地인 桂山洞에 제 1 據點을, 제2기에는 어느정도 宣敎기반이 마련됨으로써 서양 종교건축의 전통에 따라 높은곳(南山洞一帶의 山野)으로 옮겨 제2의 據點을 구축하였다. 따라서 天主教 建물의 경우 제1기는 城外部 平地, 第2期는 城外部 高地에 모두 위치하게 되었다.

제3기에는 이들 두 據點을 중심으로 각종 宗教 관련시설을 확충해 나감에 따라 城外部 平地에 75%, 城外部 高地에 25%가 분포되었다.

② 構造

天主教 建물은 宣敎 초기인 1890년대말 성당과 사제관을 木造로 건축했으나 1900년대 이후부터는 모든 건물을 벽돌 조적조로 건축하였다.

③ 平面構成

平面構成은 전 시기에 걸쳐 장방형이 압도적으로 많고 ㄱ字, ㄷ字, 十字形등, 건물의 용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나타났다.

④ 外觀構成

• 出入口: 제1기 건물의 경우 뒷마루형, 후퇴형 등이었으나, 제2기 이후의 건물에서는 대부분 단층 포치형이 사용되었다.

• 창아치: 창아치의 형태는 반원, 결원형이 많으나 뾰족, 평아치형과 복합형 등 비교적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 지붕: 제1기의 건물에서는 주로 합각, 박공지붕형이었으나 제2기 이후의 건물에서는 박공형과 모입지붕에 도머창을 부가한 형이 점차 증가했다.

2) 調查對象 建物의 外觀樣式 類型

天主教 建物에서 나타난 外觀의 樣式類型은 傳統指向形, 西歐의 GOTHIC REVIVAL STYLE, GEORGIAN指向形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각 時期別 樣式類型別 분포는 다음과 같다.

天主教 系統의 건물은 宣敎初期인 1890년대 말에는 傳統指向의 韓屋形이었다. 그러나 1900년대에 들어 宣敎基盤이 마련되면서 그들의 宣敎理念에 따라서 GOTHIC 및 REVIVAL STYLE과 GEORGIAN形의 건물을 건축하였으며, 제3기에

GOTHIC 양식의 재현이었다.

③ GEORGIAN풍

이 건물 類型은 1930년대에 들어 神父 司祭館, 學校建物 등에서 나타났다. 이들 건물은 벽돌 組 續造 2층으로 正面에 반원 아치형 ARCADE 3개를 두고, 正面 中央 지붕에는 PEDIMENT를 설치하여 正面性과 對稱性을 강조하였으며 지붕의 4면에는 각각 DOMER窓을 두었다. 建物の 平面은 長方形 ㄷ자형으로 正面 中央部의 PORCH를 중심으로 좌우에 各室을 均衡하게 배치함으로써, 外觀과 함께 左右對稱을 이룬다.

대구의 천주교 단체에서는 宣敎初期 傳統指向形의 木造 韓屋을 지었으나 1900년대 이후부터는 대부분의 건물들이 GOTHIC REVIVAL STYLE (準GOTHIC形)과 GEORGIAN STYLE을 추구하였다. 天主敎 系統의 건물은 대부분 左右對稱形으로 흑색, 이형벽돌을 PILASTER, BUTTRESS, 모서리 기둥 등에 사용하여 壁面을 分節하였으며, 지붕은 함석을 이은 모임지붕형으로 DOMER窓과 굴뚝을 突出시켜 垂直性과 正面의 對稱性을 강조하였다. 壁面에는 層間 및 처마부에 흑색 벽돌을 내쌓기하여 CORNICE를 구성하여 변화를 주었다.

(2) 歐美 宗教團體의 改新敎

分析對象의 改新敎團體 건물은 19개로서 주택 9개, 학교 6개, 교회 4개, 병원 등으로 주택 및 학교건축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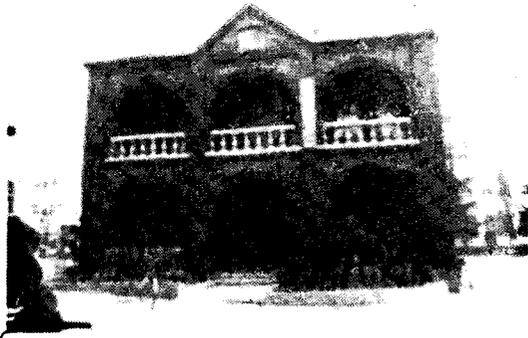


사진3-2 계산성당사제관

1) 調査對象 建築物의 要素別 類型

① 立地

선교 초기에는 大邱府內 南城路의 信徒 私家에 宣敎據點을 구축하였다. 1900년대 초부터는 성밖의 高地인 銅山(東山)에 제2의 據點을 구축하고 이곳을 중심으로 선교활동을 전개하였다. 따라서 改新敎 建物は 第1期부터 전시기에 걸쳐 대부분 城밖의 高地인 銅山(東山)에 분포되었다.

② 構造

건물의 構造는 제1기와 제2기에 몇몇 건물이 木造로 건축되기도 하였으나 1900년대 초부터는 대부분의 건물들이 벽돌 조적조로 건축되었다.

③ 平面構成

平面構成은 全時期에 걸쳐 장방형이 압도적으로 많으며, 정방형·T字形·十字形 등도 일부 나타났다.

④ 外觀構成

• 출입구 : 全時期에 걸쳐 단층 포치형이 많았으나 초기의 교회용 건물은 주로 다층 포치형으로 정면을 강조한 형이었으며, 후퇴형의 출입구도 일부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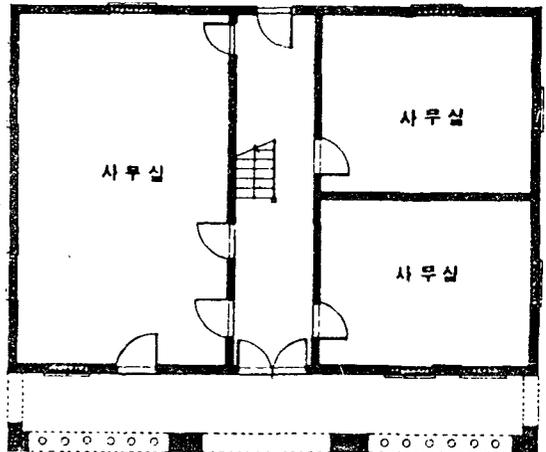


그림 3-1 계산성당사제관평면도

4) 建物の 正面 主出入口 포치지붕이 건물 상부까지 Turret처럼 구성된 類型

• 창아치 : 제1기의 건물에서는 결원아치형이 많고 제2기의 경우는 결원아치와 함께 평아치가 나타났다으며, 제3기 건축에서는 뾰족아치와 평아치가 주로 사용되었다.

• 지붕 : 지붕형태는 제1기의 경우 박공형에 세드창을 부가한 지붕형이 주로 사용되었고, 제2기에는 모임지붕이, 제3기에는 박공지붕과 평지붕이 주로 사용되었다.

2) 調査對象 建物の 外觀樣式 類型

改新敎 건물에서 나타난 外觀의 樣式類型을 살펴보면 韓洋折衷形, GOTHIC風, COLONIAL風, 折衷主義的 類型 등으로 분류되며, 각 時期別, 樣式類型別 분포는 다음과 같다.

改新敎에서는 宣敎初期부터 第 2期까지는 韓·洋折衷形의 建물을 주로 건축하였으며, 제3기(1930년대초)부터 GOTHIC REVIVAL STYLE의 建물을 건축하기 시작하였다.

① 韓·洋 折衷形

이 建物の 類型은 宣敎初期부터 改新敎 團體에서 宣敎政策에 따라 주로 사용한 樣式으로 대표적으로 啓聖學校 ADAMS館(1908), ERDMAN住宅(1910), 東山聖經學校 本館(1913) 등이 있다.

이들 건물들의 배치는 대부분 절통으로 지형에 따라 독립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전통적인 모티브는 주로 지붕부나 현관 포치부 등에 팔작 기와 지붕의 형태로 표현되었고, 韓屋의 처마곡선을 살리는 수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사진3-3 계산성당사제관

이와같이 전통적인 모티브가 지붕층에 주로 나타나는 것은 내부 기능과 새로운 外壁材料, 건물의 重層化 등에 의하여 다른 부분에는 도입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② COLONIAL風

이 건물의 類型은 美國人 宣敎師들이 그들의 住居에 주로 사용한 樣式으로, MCFARLAND住宅(1901), REINER住宅, BLAIR住宅(1910년경) 등이 대표적 건물이다.

이들 건물의 평면은 대부분 長方形이며, 正面部에 현관으로 이어지는 베란다를 두고, 현관홀을 중심으로 각실을 연결하였다. 外觀은 벽돌조 2층으로, 지붕은 박공형으로 평활한 모습을 보이며, 지붕의 전후면에는 SHED形 지붕창을 설치하였다. 이러한 類型이 대구의 東山洞에 많이 지어진 것은 지붕이 평활하고 처마가 넓어 韓式住宅의 지붕과 類似하여 地域環境과 잘 조화를 이룰 수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③ GOTHIC REVIVAL STYLE

1930年代에 들어 改新敎에서는 敎勢가 확장됨에 따라 교회당, 학교 등을 GOTHIC REVIVAL STYLE으로 건축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 건축된 교회당은 一廊式 平面으로 건물의 正面에는 ARCADE형의 PORCH를 두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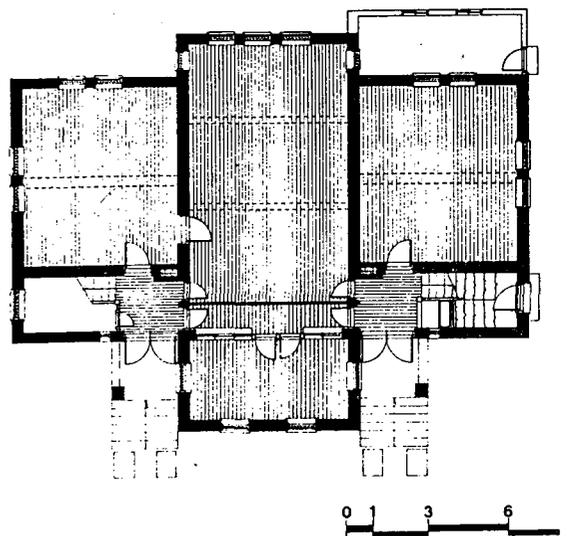


그림3-2 동산성경학교 평면도

우측부에는 鐘塔을 설치하였다.

학교건물은 一字形의 중복도식 平面으로, 正面 중앙의 현관 PORCH를 중심으로 各室을 均등하게 배치한 左右對稱形이다. 건물 外觀은 正面 中央 出入口部の 壁面을 지붕위까지 突出시키고 中世城廓 모양의 裝飾을 하며 GOTHIC적 분위기를 나타내었다.

(3) 일본인

分析對象의 일본인 건물은 50개로서 住宅 5개, 官廳 및 공공건축 13개, 상업건축 18개, 학교건축 13개, 병원 1개 등이다.

1) 調査對象 建築物의 要素別 類型

① 立地

일제가 대구에 植民地 統治基盤을 구축하기 시작하는 제1기의 건물은 대부분 성 내부에 분포되었으나, 제2기에는 성 외부의 평지에도 68%가 위치하였으며, 제3기에 와서는 성 내부 35%, 성 외부의 평면에 50%, 고지 15%로 府內 全地域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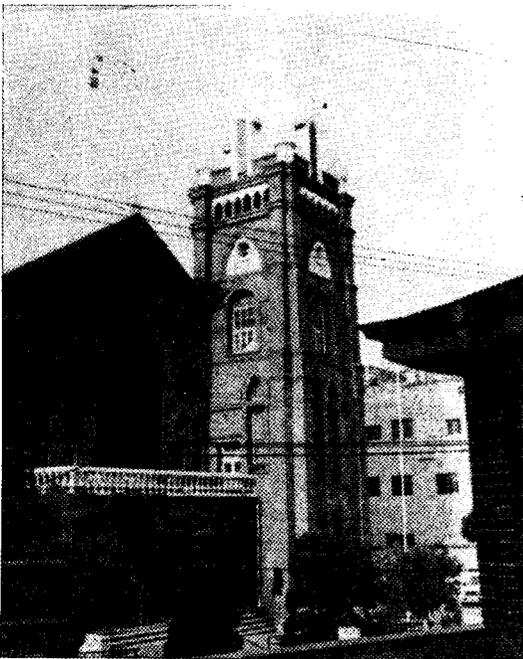


사진3-4 제일교회

확장되어 갔다.

② 構造

제1기의 건물은 모두 木造였으나 제2기에는 벽돌조 45%, 철근 콘크리트조 12%로 벽돌조적조가 많아졌으며, 제3기에는 벽돌조 45%, 철근 콘크리트조 40%로 철근 콘크리트의 사용이 점차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③ 平面形態

平面構成은 全時期에 걸쳐 장방형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제2기부터는 정방형, ㄱ자형, ㄷ자형 등 다양한 형태의 평면이 나타났다.

④ 外觀構成

• 출입구: 제1기 건물의 出入口 형태는 단층 포치형과 더불어 다층 포치형이 사용되기도 하였으나 제2기부터는 단층 포치형이 많아졌으며 第3期에 와서는 단층 포치형으로 일반화되었다.

• 창아치: 창아치 형태는 全時期에 걸쳐 평아치형이 80-90%정도로 많이 사용되었으며 第3期의 近代的 建物에서는 정방형에 가까운 창이 나타났다.

• 지붕: 제1기의 경우는 모임지붕이 주로 사용되었으나 제2기 부터는 박공, 모임, 모임+도머, 변형 만사드 지붕 등 다양한 형태의 지붕이 나타났다. 제3기에 와서는 평지붕의 사용이 증가되었다.

2) 調査對象 建物の 外觀樣式 類型

大邱의 日本人들은 제1기부터 제2기 초까지는 주로 日·洋折衷(木造 擬洋風)의 건물을 건축했으며, 제2기 中盤以後부터 르네상스風과 日·洋複合形의 건물을 지었다. 제3기에는 르네상스風 건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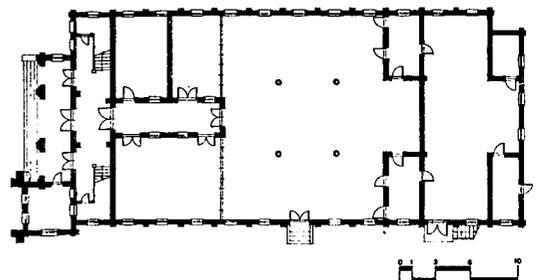


그림3-3 제일교회 평면도

이 主流를 이루게 되고 193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근대적 類型의 건물을 건축하기도 하였다.

① 日·洋折衷式(木造擬洋風)

이 건물의 類型은 日帝가 大邱에 植民地 基盤을 構築하기 시작하는 1900년대 初 주로 官廳, 銀行 등의 건물에서 나타났으며, 그 대표적인 건물은 第一銀行 大邱支店(1905), 大邱 警察署(1909), 大邱 控訴院(1910) 등이 있다.

이 시기의 건축에 관한 자세한 기록이나 현존하는 건물은 찾아볼 수 없고, 다만 현재까지 전해오는 당시의 건물사진과 약간의 文獻資料를 살펴보면, 이들 건물은 대부분 木造2층이며, 外觀은 正面中央에 PEDIMENT로 장식된 현관 PORCH를 설치하여 좌우대칭으로 구성하거나 正面의 壁 一部를 지붕위까지 돌출시켜 탑처럼 구성하였다. 壁面에는 평아치의 垂直으로 긴 窓을 내고 처마부를 2단의 CORNICE로 장식했으며, 지붕은 모임지붕형으로 기와를 이었다. 이 類型의 건물들은 당시 統監部에서 大邱地域에 日本貨幣를 流通시키고 大邱 日本 居留民들을 保護, 支援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건축한 것으로 건물의 正面性과 對稱性을 강조하여 엄격함을 나타내고 있다.

② 르네상스風 建物

이 건물 類型은 金融機關, 대규모의 商業建築에서 많이 나타나며 대표적인 건물로는 大邱 金融組合(1925), 朝鮮植産銀行 大邱支店(1931), 이비시야 백화점(1932) 등이다.

그 대부분이 長方形 平面이며, 홀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붕은 모임지붕형에 domer창을 설

치하고 이 창을 상부를 PEDIMENT로 장식하거나 평지붕으로 처리하였다. 外壁의 材料는 붉은벽돌로 쌓거나 타일을 붙였고, 벽모서리와 窓間壁은 기둥 모양으로 내쌓기하여 柱頭를 붙여 장식하였다. 開口部는 組積造의 특성상 垂直窓(오르내리窓)으로 대부분 평아치로 구성하고 窓上部에 각종 裝飾板을 부착하기도 하였으며 현관 PORCH는 單層의 평지붕형이 많다.

③ 르네상스風의 권위적 건물

이 建物類型은 주로 관청이나 학교건축에서 많이 나타나며 總督府의 政策이 이러한 建物類型에 강하게 반영되고 있다. 건물의 平面은 一字形으로 편복도형이 많으며 현관홀을 중심으로 外觀과 함께 左右對稱을 이룬다. 內壁材料로는 벽돌을 주로



사진3-6 조선식산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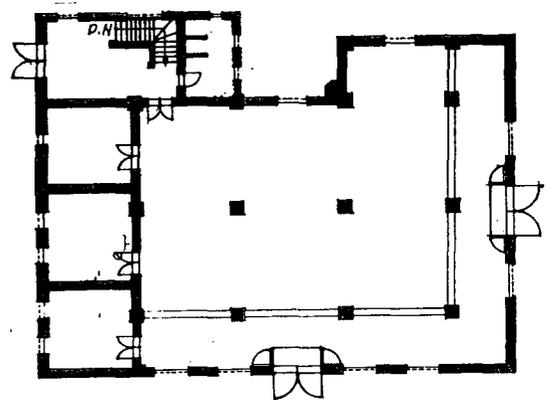


그림3-4 조선식산은행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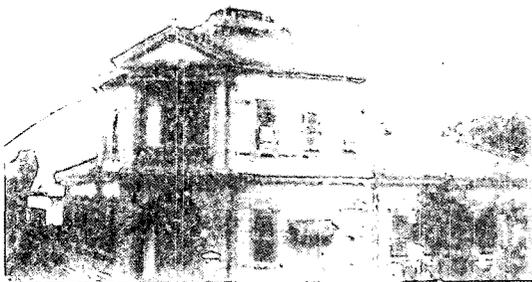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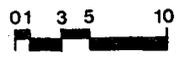


사진3-5 대구 경찰서

사용하였고 開口部는 垂直窓이 사용되었다. 또한 건물의 正面性과 수직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外壁面에서 垂直性을 강조하도록 처리하거나 기둥이나 굴뚝등의 모티브를 적극적으로 正面에 표현하였으며 특히 主出入口가 위치하는 중앙부의 外壁을 다른 부분보다 돌출시켜 수직적, 장식적인 처리를 하였다. 이 건물유형은 특히 학교건축에서 일제의 植民地 統治方針을 잘 반영하고 있으며 帝國主義의 교육이념과 통제가 용이하도록 권위적이고 확립적인 外形을 가지고 있다.

④ 근대적 건물

이 類型은 1930年代 後半 근대적 建築樣式의 流入과 철근콘크리트의 사용으로 다양한 FACADE를 구사하는 近代의 건물로 나타났다. 壁面에는 垂直性과 裝飾性이 배제된 正方形에 가까운 창, 평지붕등과 함께 건물의 형태로 특징지워진다. 그 대표적인 건물은 三國商會(1938), 키네마 구락부(1939) 등으로 外觀 構成이 單純化해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壁面 一部를 곡면으로 構成하기도 하는 등 변화를 보인다. 이런 類型의

건물은 同時期의 慶北 尙州에 건축된 岡奇百貨店(1938)을 하나의 예로 볼 수 있다.

④ 日·洋複合形

이들 건물의 平面構成은 公的部分(接客部)과 私的部分으로 엄격히 구분되며 公的部分은 양식으로, 私的部分은 일본 傳統住宅의 양식을 그대로 채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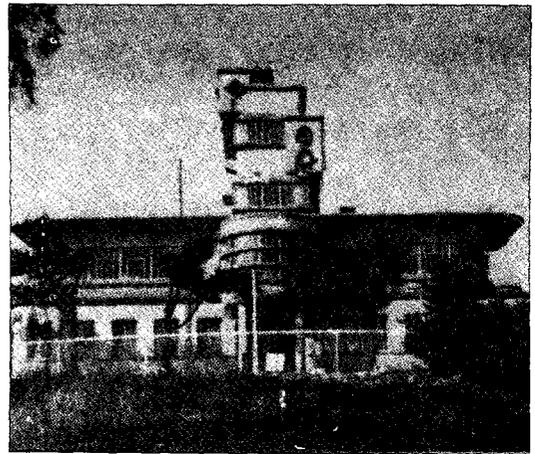


사진3-8 대구 측후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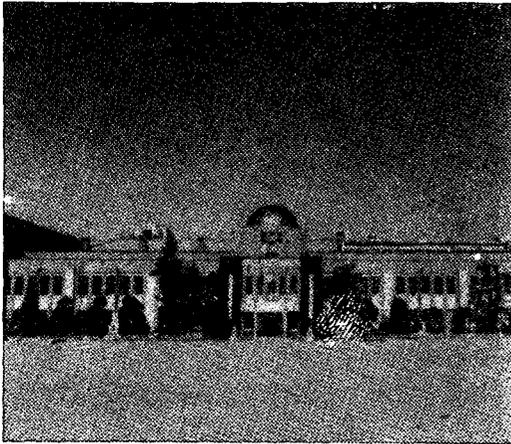


사진3-7 대구공립보통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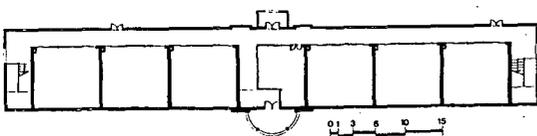


그림3-5 대구공립보통학교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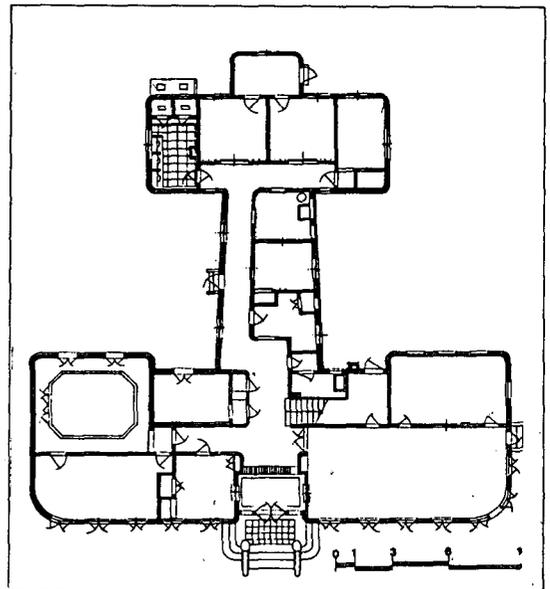


그림3-6 대구측후소 평면도

(4) 中國人

조사된 중국인의 건물은 住宅 2棟뿐으로 모두 城外부의 高地인 南山洞에 立地하였다.

1) 調査對象 建築物의 要素別 類型

① 立地

중국인들에 의한 건축은 제2기와 제3기에 각각 1棟의 건물이 조사되었는데 이들은 모두 城 外部의 高地인 南山洞에 위치하였다.

② 構造

제2기의 건물은 木造였으나 제3기 건물은 벽돌 조적조로 건축되었다.

③ 平面形態

제2기와 제3기의 건물 모두 장방형이다.

④ 外觀構成

調査 건물의 출입문 형태는 모두 단층 포치형 이고 창은 평아치형이다. 지붕은 제2기에 모임 지붕, 제3기는 박공 지붕형을 사용하였다.

2) 調査對象 建築物의 外觀樣式 類型

중국인들의 住宅 2棟에 나타난 外觀의 樣式類型은 西歐의 近代以前 折衷主義樣式이다.

(5) 韓國人

分析對象의 한국인 건물은 6개로 公共建築 1개, 住宅 2개, 商業建築 2개, 학교 1개등이다.

1) 調査對象 建築物의 要素別 類型

① 立地

韓國人에 의한 건축은 제2기에 들어와서부터 시작되었는데 이 때의 건물은 城 外部의 平地와 高地에 각각 1棟씩 지어졌고 제3기에는 주로 城 内部에 집중되었다.

② 構造

全時期에 걸쳐 벽돌 조적조가 많았으며 제3기 후반에는 조사 건물의 20%가 철근콘크리트조로 建築되었다.

③ 平面形態

제2기의 경우는 장방형과 ㄷ자형이 사용되었고 제3기에는 장방형, 정방형, ㄷ자형등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④ 外觀構成

건물의 出入口 形態는 대부분 단층 포치형 이었고 창아치는 모두 평아치형을 사용하였다.

지붕은 제2기의 경우 박공, 모임지붕이고 제3기는 모임 지붕형에 이어 평지붕의 사용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2) 調査對象 建築物의 外觀樣式 類型

韓國人의 建物에 나타난 外觀樣式 類型은 르네상스식 건물과 근대적 건물로 구분할 수 있다.

① 르네상스風 건물

이 建物類型은 한국인 민족주의자와 商業資本家에 의해 건축된 건물로서 日帝의 植民統治에 對抗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건축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 건물의 樣式類型은 대부분 西歐 近代 이전의 折衷主義 양식이다.

② 근대적 건물

이 類型은 1930年代末 住宅에서 나타나고 있다. 平面은 長方形이고 外觀構成은 壁面의 垂直性과 裝飾性이 배제되어 단순한 形態를 보이며 壁面의 일부를 곡면으로 처리하기도 하였다.

IV.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大邱地域 近代建築의 樣式類型은 建立主體와 時期에 따라 다양한 形態를 보이고 있으며 時期別 樣式類型의 變遷과 建立主體別의 特性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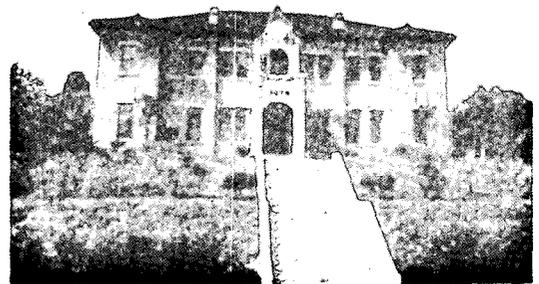


사진3-9 조양회관

1. 建立主體別 樣式類型의 特性

1) 歐美宗教團體의 경우 天主教에서는 그들의 宣敎理念에 全時期에 걸쳐 GOTHIC REVIVAL STYLE(GOTHIC風)의 建물을, 改新敎에서는 大邱地域의 風土에 적응할 수는 韓·洋折衷形과 COLONIAL 樣式의 BUNGALAW風 주택을 指向했으나 1930年代 이후 敎세가 확장됨에 따라 敎會堂을 중심으로 GOTHIC REVIVAL STYLE(GOTHIC風)의 건축이 주를 이루었다.

2) 日本人인 건축은 제1기와 2기의 경우 觀廳, 은행 등의 建물이 많이 지어졌는데 이들 建물은 대부분 正面 中央의 單層形 PORCH를 중심으로 대칭을 이루며 돌출벽, PEDIMENT, 기둥, 굴뚝, DOMER窓 등의 모티브가 정면에 적극적으로 表現되었다. 이는 그들의 植民地 統治理念에 따라 建物の 正面性과 함께 垂直性을 강조하여 權威的 外觀으로 구성하였다. 제3기에는 제2기의 形態가 다소 발전된 권위적인 성격을 띤 折衷的 外觀이 나타났으나 1930년대 후반부터는 철근콘크리트의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벽면의 垂直性과 裝飾性이 배제된 近代의 外觀의 建물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3) 中國인 건축은 住宅 2棟뿐으로 모두 르네상스風의 外觀을 구성하고 있다.

4) 韓國인 건축은 日本人 건축과 거의 같은 類型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日帝에 항거하는 민족적 意志의 표현이었다고 생각된다.

2. 各 時期別 樣式類型의 變遷

① 제1기에 있어서는 近代건축이 아직 정착되기 이전의 시기로 주로 韓屋形, 日·洋折衷形(木造

擬洋風), 韓·洋折衷形 등의 建물들로서 비로소 近代建築의 類型이 태동하는 시기로 볼 수 있다.

② 제2기는 건립주체들의 건축적 사고가 建물의 樣式類型에서 表출되기 시작하는 時期로 歐美宗教團體의 경우 天主教는 GOTHIC REVIVAL STYLE(GOTHIC風)로, 改新敎는 韓洋折衷形과 더불어 COLONIAL風의 建물이 주로 건축되었고, 日本人들은 度支部의 영향하에서 르네상스風의 權威的 建물을 건축하였다. 또한 이 시기의 韓國인들도 르네상스風의 建물을 自力으로 건축하였다.

③ 제3기에 있어서는 구미 종교단체의 경우 천주교는 GOTHIC REVIVAL STYLE(GOTHIC風)과 더불어 GEORGIAN風의 建물이 주를 이루었고, 개신교에서는 이때부터 GOTHIC의 서구지향적 建물을 짓기 시작하는 變化를 보였다. 日本人들은 철조 콘크리트조 르네상스풍의 建물에 이어 후기에는 콘크리트의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다양한 FACADE를 구사하는 近代적 建물들이 건축되는 시기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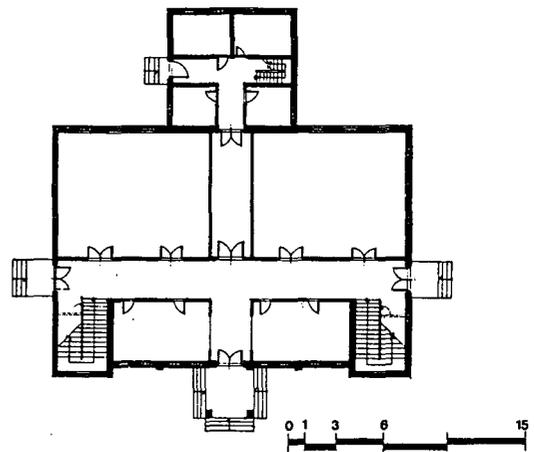


그림3-7 조양회관 평면도

참고문헌

1. 大邱 毎日新聞社, 聖母窟 建立許原書, 1983. 3. 1字 新聞.
2. 大邱市, 大邱市史 第 1, 2, 3卷.
3. 大邱市, 슬기 맑은 意志의 都市, 1975.
4. 信明 70年史 編纂委員會, 信明 70年史, 1977.
5. 鄭 淳在, 寫眞으로 보는 舊韓末, 毎日觀光文化社, 1980.
6. 第一教會 90年史 編纂委員會, 大邱 第一教會 90年史, 1983.
7. 金 一鎮. 鄭 鎮洙. 尹 在雄, 大邱地域 近代 建築物 調査報告書,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1988. 10
8. 金 一鎮. 尹 在雄, 大邱地域 近代 基督教建築의 特性과 類型에 관한 研究, 大韓建築學會誌, 1989. 2.
9. 金 正新, 韓國의 聖堂建築, 建築文化, 1984. 7 - 1986. 7.
10. 尹 一柱, 韓國 洋式建築 80年史, 治庭文化社, 1966.
11. 尹 在雄, 大邱地域 近代建築의 形成過程, ARCHITECTURE+INTERIOR DESIGN, 月刊 PLUS 1991. 11.
12. 尹 在雄, 未指定 文化財 建築物 實測調査(), 大韓建築學會, 1988.
13. 村松貞次郎, 日本·樣式建築, 新建築史, 昭和52年.
14. 玉眞秀雄, 教會建築, 彰國社, 昭和28年.
15. 河井朝雄, 大邱 物語, 1931.
16. Happy, A. Rhodes. AM. D. D, History of the korean Mission press by sterian Church, U S. A.
17. Herbert Pothorn, A Guide to Architectural Styles.
18. 金晶東, 韓國近代建築에 있어서 西洋建築의 轉移와 그 影響에 관한 研究, 弘益大, 博士學位論文 1990.

A Study on the Types of the Modern Architecture by the Builders in Taegu Province

Yoon, Jae Woong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ype of the modern architecture in Daegu province, based on 91 buildings which were built from 1886 to 1945 in Daegu province.

The results of this study could be summarized as follows :

The modern buildings were built by the western missionary, Japanese, Chinese and Korean.

The catholic, built Korean style cathedral and parsonage early in the missionary period, then changed to build Gothic revival and georgian style masonry buildings. The protestant built eclectic buildings. With masonry structure and Korean roof style. Then from 1930's, they started to build Gothic revival style buildings.

Japanese built eclectic buildings which mixed with Western and Japan type during the first period. Then, they also started to build Western eclectic building.

Chinese built only two buildings during the whole periods and those were Western eclectic style buildings.

Korean started to build commercial and school buildings which were Western style from the middle of the second period by nationalist and local commercialist.